Media 충남도립대학교신문
CHUNGNAM STATE UNIVERSITY NEWSPAPER

발행처 충남도립청양대학 신문사 **발행인** 총장 구본충 **사장** 박창원 교수 **편집장** 안시정 **발행일** 2016년 4월 제42호 **디자인** 예당기획 TEL. 041-333-4405

충남도립대학교의 대표, 구본충 총장님을 만나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view

기자 : 안녕하세요. 총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장 : 예, 우리 학생 기자들도 이 자리에 찾아와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자 :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의 신입생 수는 경쟁력이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연도 우리 학교는 신입생 정원에 변화가 생긴 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신입생 유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총장 : 저는 신입생을 유치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보강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 그리고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경력경쟁시험인데요. 특정 과에만 경력경쟁시험의 기회가 몰려 그 기회에서 소외된 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총장 : 경력경쟁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에 탈락자가 많아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이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 여태까지 너무 정책적인 질문만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총장님에 관해 물어보려 합니다. 대학 총장직을 맡으시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봐오셨을 텐데, 총장님께서의 대학생활은 어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총장 : 저는 대학생활에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1학년 때는 삼수한다고 고등학교 책 들고 다니고, 2학년 때부터는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들어가 박혀 있는 것이 일쑤였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대학생활에 대해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후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총장직을 맡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총장 : 젊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 대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총장이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보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 보람 있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향후에 추구해야 할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총장 : 우리 학교의 교훈이 인격도야 학술연마 사회봉사입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품성을 갖추고 전문지식을 배워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여러분의 발전은 물론 대학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역량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 현재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해주실 또 다른 당부가 있으신가요?

총장 : 여러분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인 만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귀중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에게 하루 24시간씩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꿈과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꿈을 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좋을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신 총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장 : 인터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모두에게 제 당부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INSIDE

02 2016학년도 제19회 입학식 거행
충남도립대학교 역대 최다 진출

03 우리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캐나다로 떠난 복수학위제 인터십 생활보고일지를 공개하다!

04 05 학교 시설 개선 조사 및 해결방안 토론회 가져
학생생활연구센터 "삶의 힐링! 자아 성찰과 성숙!"
학회장들을 만나다.
헤어뷰티과 학생 본선진출

06 07 "글로벌 인재로 육성"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사회복지 현장 실습
우리 대학 만학도 김익환 학우
창작요리 레시피! 감피전 만들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위스토리 01

2016학년도 제19회 입학식 거행

총 563명 '첫 발'… 전체수석 가진한 · 차석 곽미림 학생 차지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25일 안희정 도지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내 해오름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신입생은 총 563명으로 이날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 선서, 장학증서 수여, 식사 및 치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역대 최고령 신입생인 자치행정학과(야간)의 이인희 학우가 신입생을 대표하여 신입생 선서를 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안희정 도지사는 치사를 통해 "산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출발을 마주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굳건히 살아갈 큰 밑거름을 만들 것"강조하며, "경제적인 요건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요건을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본충 총장은 식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의 희망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창조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신입생 중 전체수석의 영예는 자치행정과 가진한(남) 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수현 국회의원과 김홍렬 도의원 및 이석화 군수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Interview 충남도립대학교 2016학년도 입학식을 맞이하여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신입생 _ 자치과 16학번 가진한, 전체수석입학생

Q 충남도립대를 알게 된 계기와 입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청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예산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학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입학하게 된 계기는 직장 진출을 위해서인데, 공무원 양성 특성화라는 특징이 있어 많은 선배가 공직에 진출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쌍둥이 형이랑 대학을 동시에 입학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충남도립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충남도립대에서의 자신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훌륭한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스스로 더욱 노력하여 이곳에 온 목적을 꼭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Q 전체수석을 하게 된 소감은 무엇입니까?

A 운이 좋게 전체수석을 하게 되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전체수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했다.

Q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A 아무래도 대학축제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체육대회와 축제가 가장 기대되는 점이다.

학부모 _

Q 충남도립대학교를 알게 된 계기

A 큰아들이 이 학교에 입사원서를 쓰겠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운이 좋게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Q. 충남도립대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게 된 계기

A 큰아들이 운이 좋게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공무원에 특화되어있는 점이 우리 작은 딸에게도 좋은 길이 될 것 같아서 입학시키게 되었다.

Q. 자녀에게 바라는 점

A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처음 오려고 마음먹었던 그 목표를 잊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위빅토리 02

충남도립대학교 역대 최다 진출

우리 대학이 개교 이래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진출에 꿈을 이뤘다.

공무원 진출 현황 (2015년 12월 31일) (단위:명)

학과별	계	소방직	경찰직	일반행정	교육행정	전산직	지적직	환경직	보건직	토목직	운전직	별정직	국가직(연인재)	임기직
계	62	12	13	15	4	1	8	1	1	4	2	1	3	2
건설정보과	3	·	·	·	·	·	·	·	·	2	·	·	1	·
환경보건과	1	·	·	·	·	·	·	1	·	·	·	·	·	·
소방안전관리과	12	11	·	·	·	·	·	·	·	·	·	·	·	·
전기전자과	0	·	·	·	·	·	·	·	·	·	·	·	·	·
컴퓨터정보과	1	·	·	·	·	·	·	·	·	·	·	·	1	·
자치행정과	24	1	2	15	4	·	·	·	·	·	·	1(야)	·	2
경찰행정과	11	·	11	·	·	·	·	·	·	·	1	·	·	·
토지행정과	11	·	·	·	·	·	8	·	·	2	·	·	1	·
호텔관광외식과	0	·	·	·	·	·	·	·	·	·	·	·	·	·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0	·	·	·	·	·	·	·	·	·	·	·	·	·
뷰티코디네이션과	0	·	·	·	·	·	·	·	·	·	·	·	·	·
작업치료과	1	·	·	·	·	·	·	·	1	·	·	·	·	·

우리학교가 작년 개교 이래 최다인 61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 대학으로 입지를 굳건히 했다. 2015년 12월 30일 우리학교에서는 작년 12월 말까지 치러진 전국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우리학교 졸업 및 재학생 수는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학교 개교이래 한 해 공무원 진출 최다 인원으로, 지난 2013년 59명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불과 입학생이 500명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 관련 학과가 매년 약 200명의 졸업생 밖에 배출하지 않는 현실에서 보면 졸업생 대비 약 40% 정도의 합격 성과이다. 그러니 경이적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이들을 분야별로 보면, 소방12명, 경찰13명, 행정(교육행정 포함) 18명, 시설 12명, 환경 1명, 운전 2명, 전산 1명, 보건 1명 별정 1명 등이다. 이로써 우리학교가 지난 1998년 개교한 이후 배출한 공직자(임용예정자 포함) 수는 총 622명으로 늘게 됐다. 이처럼 우리학교가 공무원 양성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 됐다. 이 프로그램은 모의고사를 통해 56명을 선발, 심화학습실 운영, 공채 시험 대비 동?하계 특강, 동영상강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성취도 향상 장학금 지급, 직렬별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립대는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입학 때부터 전공분야별 자체 모의고사 및 맞춤형 집중 강의 등을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및 국회 방문, 공직박람회 관람, 도의회 방청 등 공직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우리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합격자들이 행정직, 시설직(토목, 지적), 환경직, 소방직, 경찰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배출된 데는 우리 대학만의 공직진출 특성화 과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양성 특성화 대학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직 진출 부분을 더욱 강화해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특집보도 01

우리 대학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취업경쟁력, 이제는 학교에서 기르자!

우리 대학이 대학창조일리자리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공모 하여 2개의 전문대학 포함하여 21개 대학을 2015년에 처음으로 선발하였다. 우리대학 은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충남지역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및 충남도립대학교가 5:5로 매년 5억씩, 5년 5개월 동안 약 27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우리대학 학생과 충남 지역 청년의 취 ·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박람회, 취업관련 특강, 여대생 취업지원, 취업관련 다양한 경진대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상시진로시스템을 기반으로 입학과 동시에 진로탐색을 시작으로 2~3년간 진로선택, 진로준비, 취업지원의 4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등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기획교무처 및 학생지원처와 NCS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등의 부속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 참여, 취업박람회 개최, 잡페스티발 운영, 학과별 취업특강 실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 진행, 'NCS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Capstone Design 및 취 · 창업경진대회' 개최, 해외취업 프로그램 운영, 정부지원 청년고용대책 참여안내 및 지원 프로그램에 약 7천명(중복참석자 포함)이 참석하였다.

2016년에는 지난 해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검증된 사업은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취 ·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4명의 컨설 턴트가 활발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2016년에 전문 인력을 2명 더 추가 영입할 예정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학생들을 기다리며 언제나 맛있는 다과와 함께 음료를 마시며 더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진로와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문을 열어 놓고 컨설턴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취 · 창업의 고민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자유롭게 찾아 올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진선 기자(jinseon32@naver.com), 안시정(ooowow@naver.com)

› 위스토리 03

캐나다로 떠난 복수학위제 인터십 생활보고일지를 공개하다!

지난 2015년 9월 4일날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 캐나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캐나다 복수학위 4기 맴버는 백채원, 이송희, 정유진, 준택, 현빈, 이태영, 양창현이다. 이들 중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총 4명이 우리 학우다.(아래에 나오는 명단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표시된 이름은 총 5명입니다.) 이들은 6개월간 벤쿠버의 스프롯쇼 칼리지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마친 뒤 6개월간 현지 업체에서 인턴생활을 하게 되며, 향후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해외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활보고일지를 통해 근황을 소개한다.

2월 5일 설날을 맞이하여 사무실에서 떡 파티가 있었습니다. 복수학위제 4기 멤버 모두 모여 떡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대화도 나누며 즐겁게 지내다 갔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병행한 덕인지 친구들 모두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잔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각자 문법과 회회 공부 계획을 서로 비교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중 이곳 환경에 금방 적응한 태경이는 학교 가기 전 2시간 정도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다가 학교에 간다고 하여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채원이는 지금 캐나다 생활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지리를 외우고, 현빈이는 한국어를 쓰지 않고 최대한 영어만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많이 어려워했던 송희와 유진이는 2월 초까지 함께 사무실에 와서 학교 수업에 관한 영어 내용 독해나 과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으나, 요즈음에는 튜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희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놀러 다니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했고, 유진이는 현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밴쿠버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캐나다에 인턴십으로 나가 있는 맴버는 이수빈, 이성은, 양창현, 원지연 학생이 있다. (이 명단이 앞에랑 분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수빈 학생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식사 후 바로 IH 학원에 가서 ESL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학교 수업은 이해가 어려웠는데 학원에서 듣는 수업은 수준에 맞아서 이해하기도 쉽고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은 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수빈이와 지연이와 함께 IH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맞아서 수월한데 여전히 학교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가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에 가서 수업에 관한 예습 복습도 하고 밴쿠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라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의 힘든 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창현 학생은 "2월 1일부터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엘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과라 그런지 음식에 관심이 많아 밴쿠버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관도 가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원지연 학생은 "오전에는 학교에 다니고 오후에는 IH학원에 가서 ESL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집주인 자녀들이 돌아와서 같이 지내게 되어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며 여기저기 함께 놀러 다닙니다. 덕분에 영어 회화 실력도 절로 느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며 인턴십 생활에 잘 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해외 인턴십의 생활은 이처럼 바쁘고 힘든 것이지만, 그들이 나고 자란 우리나라를 떠나 머나먼 캐나다의 땅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바쁘고 힘든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답게 빛나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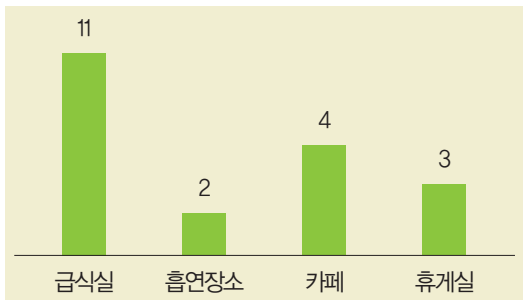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위 원트 01

학교 시설 개선 조사 및 해결방안 토론회 가져

건설정보과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 등 NCS 수업시간을 통해 우리 대학시설개선 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신문사는 우리 학우들이 느끼는 가장 고통을 느끼는 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점은 무엇인지 건설정보과 학생들을 통해 취재해보았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모색과 시설개선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제 개교 20년을 앞두고 청년의 위상에 선 대학에 맞게 몸도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건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항상 어느 단체나 완벽한 조건 하에서 생활을 진행할 수도 없다. 어느 대학도 그러한 대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우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대학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고통요소(paint point)는 점차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 선정 조사
(조사집단 : 건설정보과)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번 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식당이다.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불편의 가장 큰 원인은 점심시간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이 되면 평소 약30~40여명 대기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점심시간의 대부분을 밥 먹는 것에 소비하게 되어 수업 시간 중 잠깐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줄 을 서 있는 동안 햇빛, 눈, 비, 더위, 추위에 노출돼 고통스러우며 급식을 받아도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건설과 학생들 학교 식당 등 문제 해결방안 토의

이에 건설과 학생들은 자체 토론한 해결방안을 통해 안을 마련해 보았다. 건물을 차후 학생회관이 지어지면 학생식당을 그곳으로 이전하고 現 식당은 카페와 매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점심 식사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더 쾌적한 캠퍼스, 다양한 학생활동이 좀 더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급식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는 흡연과 관련된 제안이다. 교내 다수의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은 비흡연자들도 왕래가 잦은 매점 앞과 각 건물의 입구 등 정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접 흡연의 사례가 많다. 건설정보과 학우들은 그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박스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몇 몇 학생들이 흡연 공간인 흡연박스 설치를 가상으로 계획해 보았다.

가상도

이렇게 흡연공간을 만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흡연자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발생되는 것이고 간접흡연을 통한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에 대해 건설정보과 학우들은 “학교의 상황과 환경을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교내 불만 파악으로 실제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조사를 통한 건설업계의 현황이나 추세를 파악 하여 직업탐색에 도움이 된다”, “직접 학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보고 학교의 열악한 점을 깨달았고 학교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되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용 시설도 불편한 점을 개선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등의 소감을 말했다. 향후 이 학우들의 바람이 실제로 활용될 날을 기대해 본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위스토리 04

학생생활연구센터 “삶의 힐링! 자아 성찰과 성숙!”

학생생활연구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대학생활 실현하세요.

전국 최고의 활동력을 자랑하는, 늘 친구처럼 대화하며 편안하게 힐링하는 학생생활연구센터.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는 대학생활적응, 학업, 대인관계, 진로 탐색과 이성 문제 및 정신적 문제 등의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보람 있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내도록 돕고 있다. 대학에서 전공지식을 쌓고, 진로계획을 세우고, 동료들과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 충남도립대학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치유의 열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경주 상담실장은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생의 22.7%가 우울과 불안 등을 포함한 성격 및 정서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느끼고, 대인관계 및 이성 관계에 대해서도 20%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담실을 찾는 학생은 많지 않다.”면서 “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이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도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며 모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특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젊음의 에너지를 미래의 토대로 만드는 우리 학생들은 삶의 토대가 되는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항상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 마음이 아픈 학생들, 우울하거나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두렵거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개개인의 내면을 다듬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자존감을 올바로 갖추지 못하면 친구 관계와 학교생활뿐 아니라 직장생활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아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1학기 중에 대인관계능력 증진, 리더십 및 자기 주도 학습을 주제로 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검사를 통한 자아 성장을 돕는 개인 상담도 마련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족과 학교적응 문제로 우울해 하던 학생은 “상담을 통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상처를 말하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점점 상처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 나갔다. 상담이 끝 난 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던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전공강의를 따라가기 어려워 학업중단을 고민하던 학생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학습패턴을 지적해 주고, 당연히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신 덕분에 학업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졸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특성을 알고 싶어 한 학생은 “심리 상담을 함으로써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의 성격을 알게 되어 맘이 좀 편안해졌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 준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좋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학생은 “좀 더 내 목표와 자아 존중감을 더욱 달성하고 향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상담이 재미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이후,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어요. 상담실의 좋은 만남을 다른 학생들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학생생활연구센터에서 상담하려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거나 상담실(예지관 2202)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김진선 기자(jinseon32@naver.com), 안시정(ooowow@naver.com)

› 위스토리 05

충남도립대의 학회장들을 만나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대의원회 멤버가 꾸려졌다. 이에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과의 새 학회장들에게 본인의 소감과 한해동안의 각오에 대해 말해보는 인터뷰를 가졌다.

건설정보과 _ 윤윤수 "국토건설 전문기술 지식인 양성"

건설정보과 학회장이며 과대를 겸임하고 있는 윤윤수는 "우리 건설과는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을 목표로 학우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정보공유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과를 만드는 학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친밀감을 쌓고 싶습니다. 이번 학회장이 된 계기로 저 자신의 단점을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고선 마지막 한마디로 "초반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겁이 나기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 노력 중입니다. 건설과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 과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했다.

헤어 뷰티과 _ 조재봉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토탈 뷰티아티스트 양성"

뷰티코디네이션과 조재봉 학회장은 "처음에 뷰티과에서 전공을 배워 취업만을 목표로 했지만,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서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학회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시험하고 싶었던 계기도 있었지만, 과 동기들을 리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다 같이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저희 학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화목한 분위기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경찰행정과 _ 한자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경찰양성"

경찰행정과 한자음 학회장은 "저희과는 타 학과에 비해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도 많고, 그를 희망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학교의 지원이 충분하며 경찰행정 분야 경력경쟁시험을 볼 수 있는 특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 과를 위해서 경찰준비를 하는 신입생이나 동기들을 돕고 싶었고, 반 개월 동안이나 경찰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동기들이나 신입생 친구들이 경찰 공무원을 바라보고 저희 과에 들어오겠지만 정확한 방법, 계획을 알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고자 학회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의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과 학우들의 부족한 부분도 제가 채워주는 최선을 다하는 학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과 _ 김영준 "유능한 소방기술을 갖춘 중견전문기술인 양성"

소방안전관리과 김영준 학회장은 "소방과 친구들이 좀 더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소방과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기들 고민도 들어주고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방과 동기들이 체력관리를 잘하고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하고, 제가 나이가 좀 있고, 딱딱한 이미지라서 동기들이 저를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지만, 동기들과 교류를 많이 하며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학생들이 뽑아준 만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학회장이 될 것입니다.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더 발전해나가는 학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학회장으로서의 다짐을 말했다.

전기전자과 _ 남기주 "창의적인 전기, 전자 전문기술인 양성"

전기전자과 남기주 학회장은 "작년에 틈틈이 선배들 일을 도우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과 업무처리에 자신이 있고, 전기과 학생들의 건의사항도 들어주고 중간에서 고민이나 건의 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과는 단합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전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격증 취득률이 낮으므로 학생들이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도움을 주고 동기들 개인 의사도 들어주며, 존중해줄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할 때도 강제가 아닌 적극적인 의사 반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학교 행사 및 체육 활동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는 전기과를 만들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목표를 말하였다.

컴퓨터정보과 _ 신하늘 "현장맞춤형 IT전문직업인 양성"

컴퓨터정보과 신하늘 학회장은 "조교를 도와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고민이었지만, 친근한 이미지로 먼저 다가가 어려운 점을 먼저 도와주려 하니 학생들도 저를 잘 따라주고 믿어주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에도 안정된 분위기로 수업을 듣고 적응도 잘해나가고 과의 규정을 잘 지켜주어서 컴정과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년 신입생들도 우리 선배들을 잘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남은 1년도 안정적으로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토지행정과 _ 김기성 "토지정보를 운영, 관리하는 지적직 공무원 양성"

토지과 김기성 학회장은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단체를 이끌어보고 싶은 마음에 학회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복학해서 그런지 아직 과 동기들이랑 서먹서먹한 부분도 있지만, 믿음직스럽게 동기들을 잘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토지과 학생들은 학구열이 뛰어나 강의 시간에 집중력도 뛰어나고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동기들이 모르는 것을 도우며, 여러모로 교류를 많이 하는 학회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동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기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울 것이고, 저를 뽑아준 만큼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동기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_ 엄성현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인과 지역도지사 양성"

자치행정과 엄성현 학회장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동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더 좋은 과를 만들자는 것과, 학과 동기들과 후배들의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고맙게도 동기들은 저를 믿고 학회장 자리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회장 자리에 있는 1년 동안 동기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자치과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팁을 주자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을 필수로 많이 따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기에 2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가 좋아서 따로 지적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학회장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는 학회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_ 이재혁 "실내건축산업기사 및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양성"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이재혁 학회장은 "저는 이미 일 학년 일 학기 때 과대라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작정 리더라는 자리에 욕심이 나서 과를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좋은 저는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이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준 만큼 더 발전한 학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저희 인패과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 학우들이 저를 믿어준 것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과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호텔관광 외식과 _ 라종범 "환대산업 분야의 감각을 겸비한 호텔관광서비스 전문가 양성"

호텔관광외식과 라종범 학회장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늦게 와서 복학생 같은 학생이었어요. 저희 과를 오기로 마음을 먹고 온 거라 그런지 학교생활도 재미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학우들 사이는 소통이 잘 되어 재밌게 보냈습니다. 제가 학회장을 하기로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떠밀렸다는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이렇게 학회장이 되고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생이 들어올 텐데 다 같이 잘 지내면서 무탈한 한 해, 기분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여러분 저 믿고 뽑아주신 거에 대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작업치료과 _ 임소진 "장애들의 재활을 돕는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작업치료과 임소진 학회장은 "1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하고 배우는 과목들이 해부학이나 의학 용어 등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말들이 가득해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점점 재미를 느끼게 돼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고 같이 다니던 동기들까지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체육대회나 학교행사에 참여하면서 더 돈독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회장이 된 계기는 후보를 추려서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뽑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만큼 저를 믿고 밀어준 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저희 과는 멘티멘토 제도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희 과를 위해 헌신하고 믿을 수 있는 학회장이 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 위스토리 06

우리 대학 헤어뷰티과 3명 학생 본선진출

우리 대학의 헤어뷰티과 학생들이 Ntv 슈퍼파워!!

2001명 일자리를 찾아라 오디션 지역예선(충청 · 대전)에서 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행사는 4. 16.(토)에 대전대학교 MACC 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섯 명의 참가자 중 헤어분야는 안지은(2학년), 피부분야는 김아름(2학년), 메이크업분야는 최민희(2학년) 등 총 3명 본선진출이 확정되었다.

❖ 충남도립대학교 김선동 기자

› 위스토리 07

복수학위제의 준비과정인 어학연수생 10명
“글로벌 인재로 육성”

우리 학교는 글로벌 어학연수생 10명을 선발하여 오는 31일 필리핀으로 파견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립대는 해외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지난해까지 모두 170여 명의 학생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에 파견하는 어학연수생들은 필리핀 세부 산로세 종합대학교 부설 ESL 센터에서 4주 동안의 어학연수를 받은 뒤 귀국하게 된다. 충남도립대는 어학연수생 생활 지원 및 학사 관리를 위해 필리핀 산호세대학, 라셀대학교 등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구본충 총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 추진하여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해외 대학 복수학위제를 통해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돕고 있으며, 해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인턴십 과정도 운영 중이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위스토리 08

2016년 충남도립대학교 자지행정(야)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

자치행정과(야) 20명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충청남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관장 권광선)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2016년 3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주에 걸쳐 주말 실습에 참여한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참여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유능한 실천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실습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김익환 2학년 대표는 주말 현장실습 교육(시각 장애체험, 점자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해 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김치를 비롯한 반찬류(5가지) 세트를 마련하기 위해 조를 편성하고 직접 재가 방문하는 봉사활동도 병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남은 실습 기간에도 많은 장애 체험과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학우 애를 다지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계속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며, 주말 실습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충남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권광선 관장님, 임순옥 총괄팀장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2016년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보도자료 01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우리학교에도 찾아오다!

사람이 직접 찾아오는 전입신고서비스 교내와 기숙사 앞 등 창구 운영

청양읍은 실제로는 관내의 기숙사 등에 거주하면서 등본상 청양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읍은 관내 소재인 우리 학교와 기관 · 단체 등을 방문해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청양’을 홍보하면서 학업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즉시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생식당 앞 등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입신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지속해서 운영하였다. 이에 우리 학우들도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아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다.”, “전입신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전입신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이었다.
김종섭 읍장은 이러한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창구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넘치는 동네, 활기찬 청양읍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위스토리 09

우리 대학 만학도 김익환 학우

인생은 창조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항상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큰 행복이라며 청양군 장학기금 500만 원 쾌척 등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며 학과의 리더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학생 활동을 하는 만학도가 화제이다. 김익환 학우(72세, 자치행정과 2학년)는 칠순의 나이에도 매사에 열정적으로 학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예순의 나이에 입학한 학우는 있었지만 일흔이 넘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익환 학우는 작년에 칠순의 나이에 입학하면서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는 비록 만학으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다며 학문 삼매경에 빠져 있다. 특히 주경야독의 어려운 가운데 동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모금운동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5백만 원을 내놓았다. 과거 이미 공주지청 범죄예방 회장과 청양군새마을 지회장 재임 시에도 1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과 독거노인, 편모가정 등 불우이웃돕기 에 앞장선 바 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김익환 학우는 예식장업과 스튜디오 등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청양군 생활체육회를 비롯해 민족통일단체, 공주지청범죄 예방협의회, 청양군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국민포장(2006), 대통령표창(2012), 국무총리(2003), 장관표창 등의 많은 수상 경력이 있다.
학업에 도움이 되는 우량도서를 구입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입학하는 후배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사전안내 등 활발한 학교 활동을 통해 만년의 학교생활을 젊은 학생들보다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김익환 학우는 “젊은 시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며 희망을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후학을 위하여 가진 것을 조금 나누었을 뿐”이라며 “늦게나마 학교에 진학하여 훌륭한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다며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특집취재 01

호텔과가 가르쳐드립니다,
창작요리 레시피!
감피전 만들기

재료 : 양파3개 감자5개, 파프리카3개 피자치즈, 달걀, 옥수수콘, 칠리소스 크렌베리, 새싹

① 양파와 파프리카, 감자를 손질한다.

② 믹서기에 양파 1개와 감자 5개를 넣는다.

③ 소금 2꼬집과 밀가루를 한 컵 넣고 간다.

④ 오븐에 도우를 넣고 200도에서 20분 동안 굽는다.

⑤ 구워진 도우 위에 준비한 야채를 토핑한다.

⑥ 토핑된 도우를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20분 동안 굽는다.

⑦ 완성!

〉 보도자료 02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우리학교 해오름관에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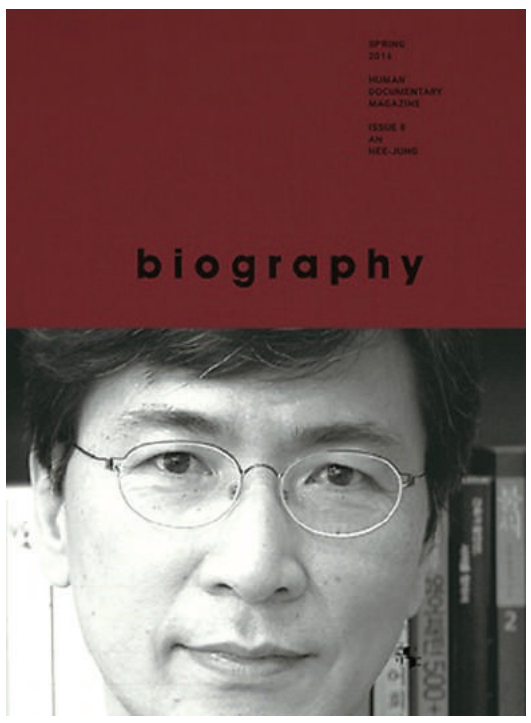
4월 7일(목)에 우리 학교 해오름관에서(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소재)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충청남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 의식 확산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해 계획?추진됐다.

소방서별 2인 1조로 구성된 1개 팀이 참가해 총 15개 팀이 경합을 펼치게 되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개 팀은 오는 4월 27일(수)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개최되는 '제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에 아산참가팀 대표인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이번 대회는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알리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시정 기자(ooowo@naver.com)

› 특집취재 02

바이오그래피 속 이사장 안희정 명사의 삶과 철학을 입체적으로 조명



우리 학교 이사장인 안희정은 민주주의를 위해 본인의 인생에서 큰 희생을 감수했다. 이에 그는 이 시대에 하나의 민주주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물을 소개하는 매거진으로, 명사의 삶과 철학을 입체적으로 서술하는 바이오그래피 매거진이 민주주의라는 타이틀로 그를 이번 호에서 조명했다.

바이오그래피 매거진은 한 호에 한 합니다. 타인의 삶에 우리를 비추어 세상을 배우자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의 삶을 순차적으로 잘 서술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세 단계로 경험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혁명의 이념이었고, 30대에는 정치 제도였으며, 이제는 사상과 철학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라며 그의 인생이 민주주의와 뿌리 깊은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이 안희정 호의 매거진을 읽고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재의 부재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라고 글을 끝냈다. 그 외에도 바이오크래피 매거진은 "안희정 도지사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 진보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이며 1989년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하였다고 했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을 거부하고 꼬마 민주당 결성에 참여했고,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정치인 노무현의 파트너가 되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당선자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냈다. 참여 정부 출범에 기여했지만, 불법 대선 자금의 책임을 지고 1년간 옥살이했다.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그는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그는 2010년 제36개 충남도지사, 2014년 제37대 충남도지사에 당선되었다. 그에게 바이오그래피 매거진은 분노와 마음을 넘어 대화하고 합의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길 바란다고 하였다."라며 그의 연혁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을 유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통해 독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했다.

❖ 김진선 기자(jinseon32@naver.com), 안시정(ooowow@naver.com)

기자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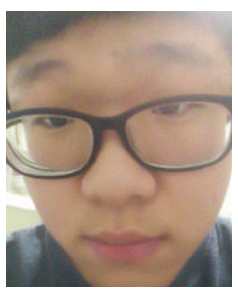
편집장 **박소정** 〉 ooowow@naver.com
신문사 활동을 처음 시작해서 벌서 1학기 반이 지나가 버렸다. 그 시간 동안 어려운 일도 많고 재미난 일도 많았지만, 신문사 일원으로서 모든 임원들에게 그간 했던 노력과 노고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는 좀 더 활기차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밝고 재미있는 신문사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우들이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고 우리 학보사에서도 대해 재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편집기자 **노해밀** 〉 ooowow@naver.com
처음 해보는 신문부 활동에 많이 부족하고 어설픈 점도 많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편집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잘 활동했던 것 같다. 학과 스케줄과 신문부 활동이 겹쳐 다른 부원들에 비해 참여한 것이 많지 않은데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박창원 교수님과 박소정 편집장님을 비롯한 다섯명의 신문부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박수를 보낸다.

소방안전관리과 1학년 **김형직** 〉 ooowow@naver.com
아직까지 신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해보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다. 학교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시기에 신문부에 입부하고 어설픈 실력으로 신문을 작성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처음으로 신문을 직접 써보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니 어려운 점보다는 느낀점과 배울점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신문부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1학년 **단선경** 〉 ooowow@naver.com
우연히 신무부를 알게 되어 신문사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신문 기사 쓰는 일은 처음이었다. 글쓰는 소질이 없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도전을 망설이진 않았다. 처음이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 나름 뿌듯한 점도 있었다. 서로 의견도 내고 하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문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신문 쓰는 일은 앞으로도 평생 못 해볼 특별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노력하려한다.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1학년 **문은주** 〉 ooowow@naver.com
처음 신문부를 들어올 때 고민을 조금 했었다. 나는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도 하고 두려웠지만 주변에서 알려주고 도와주어 용기도 생기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신문을 만들 때 꼭 학생들이 읽기 싶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다. 아직은 어색하고 부족 하지만 더욱 열심히 하여 학생들이 더욱 신문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모습은 신문사 임원들 모두와 나또한 뿌듯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편집기자 **이현수** 〉 ooowow@naver.com
나는 청양대학교 신문사에 들어온지 얼마안된 신참이다. 처음 들어와서 느끼는 긴장과 그리고 설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해보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것대로 마음대로 글이 잘 안써기도 하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신문사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고자 열심히 할 것이다. 신문사얘기를 하자면 몇일 전에 신문에 실을 동아리조사가 있었다. 물론 그때도 한 것이 많이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참여했다. 힘든 일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지역의 위인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84주년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여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 대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마지 않으며,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어 떠나가오."

1918년덕산보통학교(德山普通學校)에 입학. 후에 일제 식민지 교육에 반항하며 자퇴.
1922년 『농민독본(農民讀本)』을 저술, 야학회를 조직.
1929년부흥원(復興院)을 설립해 농촌부흥운동을 본격화, 월진회(月進會)를 조직, 수암체육회(修巖體育會)를 설치,
1930년 3월 6일 만주로 망명.
1930년 12월 칭다오(靑島)망명.
1931년 8월 상해로 망명.
1931년 임시정부애 합세.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입단.
1932년 왕상해 도시락폭탄 투척 등 상해거사.
1932년 11월 18일 일본으로 호송, 20일 오사카(大阪) 위수형무소에 수감, 가나자와(金澤)에서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

윤봉길 의거1932년 4월 29일?일본 천황의?생일 축하식이?열리던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식장 주변에는 전차를 비롯한 수많은?보병대와 기병대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삼엄한 경비를 펴고 있었다.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도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경계망을 뚫고 윤봉길은 들어 갔다. 어깨에는 물통을 메고, 양손에는 일장기와 폭탄이 든 도시락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간 것이다.
축하식이 시작되자 신사복 차림의 청중들틈에서 있던 윤봉길은 앞쪽 중앙사열대를 향하여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식이 끝나고 천황 폐하 만세를 부르는 찰나 윤봉길은 중앙 사열대를 향하여 폭탄을 던졌다.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폭음 소리와 함께 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윤봉길은 아주 침착하게 다른 폭탄을 껴안고 자결하려는 순간 체포되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던 당초의 계획이 어긋나자 그는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거듭 외치면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갔다.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다 사라쓰구가 즉사하고,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중상으로 입원했다가 죽었으며, 일본 공사 시게미쓰는 한 쪽 다리를 잃었다. 제 3함대 사령관 노무라 요시사부호는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었으며, 제 9사단장 우에다 겐키치 중장을 비롯한 5명은 크게 다쳤다. 윤봉길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재판소로 넘겨졌다. 재판에서 윤봉길은 살인 · 상해 · 폭발물 취급 위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는 스물다섯 살. 꽃다운 청춘으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
윤봉길은 조국 광복을 위해 겨레의 가슴에 구국의 횃불을 밝혀주고 세상을 떠났다.